

2025년 2/4분기 대외채권·채무 동향

- 외국인의 한국 채권 투자 등으로 대외채무 규모가 1분기말 대비 521억불 증가 -
- 외채건전성 지표가 다소 상승했으나, 안정적인 수준 유지 -

2025년 2/4분기 대외채무는 7,356억불로 1분기말(6,834억불) 대비 521억불 증가하였다.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(만기 1년 이하)는 1,671억불로 1분기말 대비 +177억불 증가하였고, 장기외채(만기 1년 초과)는 5,685억불로 1분기말 대비 +344억불 증가하였다. 부문별로 구분하면 국고채 등 정부(+302억불)를 중심으로 중앙은행(+22억불), 은행(+112억불), 기타부문(비은행권·공공·민간기업, +86억불)의 외채가 각각 증가하였다.

한편, 대외채권은 1조 928억불을 기록하였으며, 거주자의 해외 채권 투자 확대 등에 따라 1분기말(1조 513억불) 대비로는 +414억불 증가하였다.

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,572억불로 1분기말(3,679억불) 대비 △107억불 감소하였다.

금년 2분기 중 대외채무가 증가한 사유로는 외국인 등 비거주자가 국고채, 재정증권, 통안채 등 원화로 표시된 한국 채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순투자* (자금 유입)해 온 영향이 컸다.

* 2분기중 상장채권에 대한 외국인의 순투자 : (4월)11.3조원 (5월)11.3조원 (6월)3.6조원 (4~6월)26.2조원

한편, 단기외채/총외채 비중('25.1분기 21.9% → 2분기 22.7%), 단기외채/보유액 비율('25.1분기 36.5% → 2분기 40.7%) 등 건전성 지표가 1분기말 대비 다소 상승했으나 과거 추이 내에서 안정적 수준*을 유지하고 있으며, 외채 등에 대한 국내 은행의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(LCR, Liquidity Coverage Ratio)은 2분기말 기준 153.4%로 규제비율인 80%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.

* 최근 3년 변동범위 및 평균 : (단기외채/총외채 비중) 20.9%~28.0% / 평균 24.0%
(단기외채/보유액 비율) 33.7%~42.3% / 평균 37.9%

다만, 글로벌 통상환경,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 여건에 따라 글로벌 자금흐름과 투자심리가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인 만큼, 정부는 대외건전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

담당 부서	국제금융국	책임자	과 장 김희재 (044-215-4710)
	국제금융과	담당자	사무관 이태운 (lty703@korea.kr)

참 고

대외채무 현황 : 기말기준

구분	2022	2023	2024				2025		전기비 증감
			1/4	2/4	3/4	4/4	1/4	2/4	
총 외채(억불)	6,733	6,773	6,712	6,657	7,050	6,729	6,834	7,356	+521
단기외채(억불)	1,740	1,415	1,411	1,421	1,584	1,465	1,493	1,671	+177
장기외채(억불)	4,993	5,359	5,300	5,236	5,465	5,264	5,341	5,685	+344
단기외채/총외채(%)	25.8	20.9	21.0	21.3	22.5	21.8	21.9	22.7	+0.9%p
단기외채/보유액(%)	41.1	33.7	33.7	34.5	37.7	35.3	36.5	40.7	+4.3%p
대외채권(억불)	10,351	10,350	10,425	10,312	10,725	10,600	10,513	10,928	+414
순대외채권(억불)	3,618	3,577	3,714	3,655	3,676	3,871	3,679	3,572	△107

※ 통계 출처: 2025년 2/4분기 국제투자대조표(잠정) (한국은행, '25.8.20.)